

매탄2동 주민자치회, 튀르키예·시리아 구호 성금 100만원 전달

손성균 매탄2동 주민자치회장,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위해 십시일반 마음 모아
신소영 매탄2동장, 구호 성금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 희망 되길

나규향 기자 epahs2288@kgnews.co.kr

등록 2023.02.17 16:44:45



▲ 17일 수원시 매탄2동 주민센터에서 신소영(왼쪽 5번째) 매탄2동장과 손성균(가운데) 매탄2동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매탄2동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매탄2동 제공)

수원특례시 매탄2동 주민자치회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를 위한 성금 100만 원을 17일 전달했다.

주민자치회가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손성균 매탄2동 주민자치회장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소영 매탄2동장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구호 성금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나규향 기자]